

(영국) 해외관광시장 동향 - 2026년 8월

'26. 8월 /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

□ 영국 방한시장 일반

○ 한국 ↔ 영국 관광교류 현황

- 한국인 ⇒ 영국 방문 : '24년 16.9만 명으로 전년대비 7.1% ↓

- 영국인 ⇒ 한국 방문 : '25년 17.2만 명으로 전년대비 16.5% ↑

'26년 1~7월 기간 12만 명, 전년 동기비 24.1% ↑

(단위 : 명)

연 도	영국→한국	한국→영국	비고
2019	143,676	301,000	
2023	121,376	182,000	
2024	147,493	169,000	
2025	171,940	확정 통계 미발표	
2026. 1~7월	121,686	확정 통계 미발표	

* 한국인 영국방문 통계 <https://www.visitbritain.org/research-insights/inbound-markets>

* 영국인 한국방문 통계 한국관광공사 내부 통계자료 참고

○ 한국 포함 아시아 주요 국가 영국인 방문 통계

(단위 : 명)

연도	태 국	싱가포르	일 본	홍 콩	한 국	대 만
2019	946,774	607,821	424,383	470,295	143,676	115,641
2024	965,862	579,516	437,230	294,438	147,493	96,237
2025	1,083,162	587,356	535,004	339,097	171,940	108,078
2026	612,707 (1-7월)	323,666 (1-7월)	328,200 (1-7월)	191,735 (1-6월)	121,686 (1-7월)	60,251 (1-7월)
'26/'25증감 (전년 동기)	△4.8%	△8.2%	+6.5%	+13.1%	+24.1%	△4.4%

* 국가별 관광공사 공식 사이트 통계자료 참고

○ 영국(히드로 공항)→한국(인천 공항) 항공노선 현황 ('26. 8월 현재)

항공사	코드	출발시간	편수	편당 좌석수	주간 좌석수
대한항공	VS208	20:10	주7편	282	1,974
아시아나	KE908	19:35	주7편	311	2,177
버진애틀란틱	OZ522	14:10	주7편	258	1,806

*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

□ 8월 주요 동향

(정부 동향) 영국을 찾는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 등 관광산업 활성화 분위기 속에서 관광편의 개선, 관광객 안전 등 소비자 보호 개선을 위한 관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

- **영국 정부, 농촌·국립공원 4G 통신망 확대..지역관광 접근성 개선**
 - 영국 정부는 Shared Rural Network(SRN) 프로그램을 통한 4G 이동통신 기지국 업그레이드로 농촌 방문 관광객들의 통신 접근성 향상 도모
 - 자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정적인 4G 통신망은 방문지역의 기후 확인, 위치 공유 및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 등에 활용을 통해 관광 편의와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.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, 안전성을 넘어 관광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
- **영국 경쟁시장청(CMA*), Virgin Atlantic 여행사 상품가격 조사 착수**
 - * CMA :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
 - 영국 정부는 버진홀리데이 여행사 상품 가격에 추가비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. 소비자가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의무 비용을 추가하는 ‘드립 프라이싱(Drip Pricing)’ 관행에 대해 규제 강화
 - 위반 시 소비자 보상 및 기업 매출의 최대 10% 벌금 부과 조치 추진
 - 정부의 여행·항공 분야 가격 투명성 규제 강화로 향후 여행상품 최저 가격에 ‘총액 표시’ 원칙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
- **개트윅(Gatwick) 공항 확장으로 연간 항공기 10만대 추가 운행 가능**
 - 영국 개트윅 공항 제2 활주로 개통 결정으로 2023년부터 연간 약 10만편 규모의 항공편이 추가 운항될 전망
 - 현재 200개 이상 취항지 기반으로 운영되는 개트윅 공항은 이번 결정으로 향후 노선 선택권 확대는 물론, 약 14천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매년 10억 파운드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

(항공/여행업계)

- 세계에서 가장 국제여객 이용이 많은 공항 2위로 런던 히드로 공항이 선정되는 한편, 영국 여행업계는 막바지 여름휴가철 고객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
- 영국 국적사 버진 애틀란틱 항공사의 동계시즌 감편 계획 발표로 영국 방한시장의 겨울철 비수기 시즌 항공 공급 불확실성 증대

- 영국 국적기 **Virgin Atlantic**, 런던 히드로 - 인천 노선 감편 계획 발표
 - '26. 3월말 신규 취항한 버진애틀란틱(VA)의 런던 히드로-인천 노선이 올해 12월부터 일 1편 운항(주 7회)에서 격일 운항(50% 감편) 예정
 - 단, 2027년 3.1일부터는 다시 주 7회 정상 운항 예정임.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의 한국 노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즈니스 수요로 인해 영국 항공사들이 전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언급.
- '26년 국제선 여객 기준 인천국제공항 1위, 런던 히드로 공항 2위..
 - '26년 상반기 인천국제공항이 국제선 여객이 가장 많은 공항으로 선정
 - 국제공항협의회(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, ACI)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상반기 여객 규모는 3,890만 명, 그 외 런던 히드로 공항 3,779만 명, 싱가포르 창이공항 3,453만 명으로 각각 2, 3위로 차지.
- **British Airways**, 유럽 항공사 중 좌석 공급비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
 - BA는 유효좌석 킬로미터당 수익률(RASK-Revenue per Available Seat Kilometre)이 타사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. 반면, 영국 easyJet 항공사는 조사대상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 기록
 - 업계는 BA와 같은 풀서비스 항공사(FSC)와 저가항공사(LCC)간 비용 격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여행객들의 항공사 선택 선호이 여행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.

- easyJet Holidays 여행사, 여름 막바지 판촉을 위한 프로모션 실시
 - easyJet holidays가 여행사 대상 B2B 판매 프로모션을 실시함. 고객이 해당 여행사 패키지 구매 시 £100(한화 약 20만원) 할인 혜택 제공
 - 본 프로모션은 8월말까지 시행, '26년 8.19일부터 '27년 10.31일 약 1년간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에 적용
 - 이는 여름 막바지 여행상품을 예약 수요를 타깃으로 여행업계간 협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

(영국 관광수요 동향)

- (아웃바운드) 극심한 폭염, 유럽 산불 등 기후 리스크가 영국인들의 해외여행지 선택에 직,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. 한편, 영국 18-24세 그룹이 가장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시기는 8월로 조사됨
- (인바운드) 여름철 영국 인바운드 관광객 성장세로 영국 여행업계는 서비스 개선 및 지역관광 홍보에 집중

- 유럽의 극심한 폭염이 영국인들의 해외여행 목적지 검색에 영향..
 - 글로벌 OTA Kayak 분석자료에 따르면, 폭염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여름 휴가지인 유럽 해변 지역보다 다소 시원한 지역으로 수요 전환
 - 전년 대비 캐나다 오타와는 검색률이 166% 증가하였으며, 오스트리아 잘스부르크 92%, 에버딘 25%, 글래스고 24% 등 관심 증가
 - 반면, 상대적 따듯한 기후인 스페인 알리칸테, 리스본, 그리스 아테네 등은 전년대비 소폭 검색률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.
- 유럽 산불사태 영향으로 영국인 35%는 8월 여행계획 변경 고려
 - 최근 조사에 따르면, 영국 휴가객의 약 1/3이 유럽 산불 영향으로 8월 여행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
 - 산불의 영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목적지는 스페인이며, 이어 프랑스, 튀르키예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그리스 순임

- 한편, 영국인들이 유럽 내 상대적으로 기후 안전 여행지로 평가한 나라는 아이슬란드(22%), 스위스(20%), 스웨덴(20%)이며, 일부는 유럽을 벗어난 캐나다(19%)와 뉴질랜드(17%) 역시 기후가 안전한 대안 여행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.

○ 영국의 젊은 연령층 해외여행 성수기는 8월..

- 영국의 18-24세 중 44%가 8월 중 해외여행 예약 또는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영국 평균 31%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
- 월별 비교 시 7월 40%, 6월 29% 수준으로 이 연령대는 8월에 해외여행이 집중되는 경향으로 조사됨

○ 영국의 7월 외래객 수치 450만 명 기록.. 전년 대비 20% 증가

- 영국 통계청(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, ONS) 발표에 따르면, 7월 영국을 방문한 외래객은 450만 명을 기록,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영국 관광산업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다고 언급함.
- 한편, 영국관광공사(VisitBritain) 및 관광업계는 외래객 증가세에 맞추어 관광객 경험 개선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영국 내 지역 관광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.

(한국 관련 기사 동향) 방한 의료관광 및 K컬처 인기 등 관광 콘텐츠 관련 기사와 함께 한국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우수사례를 주요 기사로 보도

○ 미용목적 성형 관광객들 한국으로 몰려

출처 : travelmole (8.1,토)

<https://travelmole.com/news/tourists-are-flocking-to-korea-for-cosmetic-surgery>

○ 영국인 37%, 한국은 꿈의 여행지.... K컬처 관심이 방한 의향으로 확산

출처 : Irish Sun (8.17,월)

<https://www.thesun.ie/news/17470151/brits-love-south-korean-culture/>

- 한국, 외래객의 서울·제주 집중 완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주·해운대를 최초 ‘글로벌 관광특구’로 선정

출처 : Travelmole (8.18, 화)

<https://travelmole.com/news/south-korea-widens-its-appeal-by-creating-two-global-tourism-zones>

□ 지사 종합 의견

- (관광시장) 여름시즌 영국 인바운드 시장이 활기를 띠며 영국 정부는 관광서비스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. 폭염, 산불 등 기후 리스크가 여행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결과는 향후 기후 안전성 및 자연재해 대응 역량이 국가 관광 경쟁력에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.
- (방한시장) 7월 방한시장은 여전히 아시아 경쟁국 대비 높은 성장세를 유지. 부활절 연휴가 있는 봄철 대비 6-7월 기간은 영국인 방한객이 감소하는 시기이나, 전월 대비 7월 방한영국인이 증가세를 보인 점은 여름철 해외여행 목적지로 한국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 됨. 동계시즌 영국 국적사 버진 애틀란틱의 런던-인천 직항노선 감편으로 방한시장은 불확실성이 있으나 3분기 방한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.

< 월별 방한 영국인 '25/'26년 1월~7월 >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
'25년	6,905	7,398	15,717	24,459	16,606	13,937	13,020
전월대비 증감	△1,313	+493	+8,319	+8,742	△7,853	△2,669	△917
'26년	7,344	8,517	21,868	27,600	21,866	16,592	17,899
전월대비 증감	△1,841	+1,173	+13,351	+5,732	△5,734	△5,274	+1,307

□ 동향 관련 출처

- Independent (8.3, 월)

<https://www.independent.co.uk/travel/news-and-advice/mediterranean-extreme-heat-holidays-alternatives-b3026247.html>

- 영국 정부 보도자료 (8.4, 화)

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gatwick-to-open-second-runway-as-government-wins-legal-challenge>

- Head for points (8.9, 일)

<https://www.headforpoints.com/2026/08/09/virgin-atlantic-cancelling-seoul-flights/>

- Travel weekly (8.11, 화)

<https://travelweekly.co.uk/news/wildfires-prompt-a-third-of-uk-travellers-to-change-plans-research-suggests>

- Travel bulletin (8.12, 수)

<https://travelbulletin.co.uk/news/youngsters-love-last-minute-bookings>

- 영국 정부 보도자료 (8.14, 금)

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150-rural-4g-masts-now-live-so-holidaymakers-can-switch-off-without-being-cut-off>

- BBC (8.16, 일)

<https://www.bbc.co.uk/news/articles/cr49p1279n0o>

- Travel Weekly (8.19, 수)

<https://travelweekly.co.uk/news/cma-investigates-virgin-atlantic-over-holiday-pricing>

- Travel daily (8.19, 수)

<https://www.traveldailymedia.com/british-airways-tops-europes-airline-cost-rankings/>

- Travel daily (8.19, 수)

<https://travelweekly.co.uk/news/easyjet-holidays-unveils-100-trade-exclusive-discount>

- Travel daily (8.20, 목)

<https://www.traveldailymedia.com/uk-sees-record-tourist-arrivals-in-july/>